



2025 년 12 월 31 일

가족 여러분께,

지난 20 년 가까이 뉴욕시공립학교는 저에게 집이었습니다. 이 곳에서 저는 직업적 목적의식을 찾고 제 아이를 교육시켰으며 교육감으로 활동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.

이러한 역할을 돌아보며 저는 깊은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. 저는 제 딸이 교실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며 NYCPS 학부모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견줄 수 없는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헌신적인 동료들과 함께 일한 것이 자랑스롭습니다. 또한 저는 의미 있는 파트너십과 행동을 통해 우리 가정들 및 커뮤니티들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.

미국 최대 규모의 학교 시스템을 이끄는 최초의 푸에르토리코계 여성으로서, 저는 약 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 및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. 패밀리 커넥터(Family Connector) 모델을 통한 학부모 지원부터 NYC Reads 를 통한 읽기쓰기 교육 재구성까지 저희가 이루어 낸 변화들이 적지 않습니다. 이러한 모든 노력이 모여 학교 시스템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, 학생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, 옹호 및 특별함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저희의 약속은 저 개인이나 특정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, 커뮤니티 전체의 집단적 노력으로 실현될 것입니다. 학생들이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안전하고, 도전하는 동시에 존중 받으며,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갖춘 환경이 바로 저희가 지켜내야 할 비전입니다.

이러한 역할에 저를 임명해 주신 아담스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, 뉴욕시를 이끌 준비를 하고 계신 맘다니 차기 시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또한 2026 년 1 월 1 일부터 교육감의 직무를 맡게 될 현재 3 학군 수퍼인텐던트 카마르 사무엘스께도 축하 드립니다.

저는 원활한 리더십 이양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앞으로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교육감과 그 팀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합니다.

전체 커뮤니티 여러분께: 감사합니다.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며 NYCPS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

깊은 존경을 담아,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'Melissa Arles-Ramos'.

멜리사 아빌레스-라모스
교육감